

21세기 신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상상과 현실의 조화가 신기술의 원천 ... 실현 가능성 중요

영국의 인터넷 사이트 21st Century.co.uk에서는 2004년 1월 현재 21세기 기술로서 기업이 추진중인 미래기술의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허황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제품이 개발돼 시판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는 기술의 새싹이다.

1999년 완성된 과학과 기술의 인터넷 공식 사이트로 매달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1년 5월에는 BBC 방송의 Tomorrow World Live Exhibition에 보도됐다.

◆ 화성탐사용 이동차 Sprit 적재컴퓨터(BAE Systems 컴퓨터 RAD6000) - 7개월의 화성탐사기간 동안 방사선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2004년 1월4일 화성에 도착한 뒤 흑백영상을 무사히 송신해 왔다. 또 1대가 1월 25일 화성의 별도지점에 도착했다.

◆ 미래 TV(Philips Electronics 개발) - 거울 안에 끼워 100%에 가까운 반사율을 가진 TV이다. TV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체크아웃, 가정의 PC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다기능 TV이다.

◆ 항공우주관계 사이트를 일괄하는 시스템(eTouch Systems과 Speedera Networks 공동개발) - 3000여개의 인터넷 웹을 Speedera가 가진 기술로 NASA 정보에 순식간에 접속할 수 있다.

◆ 고무와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안전하고 저렴한 승용로켓(SpaceDev사 제품) - 고무는 말단에 Hydroxyl기를 가진 Polybutadiene이 사용된다.

◆ 테크노 핸드백(독일의 국제피혁제 가방브랜드인 BREE 제품) - 스위스 Lumitec의 EL기술을 활용해 핸드백 내용물을 조명으로 알 수 있도록 고안됐다.

◆ 프리사이즈로 누구에게나 맞는 장갑형 통신장치(Network Anatomy 제품 Commander Gauntret TM) - 양방향 무선, 위성통신기, PC용 모니터, 오디오·비디오 장치, 집적전원 시스템을 갖춘 하이테크 장갑이다.

◆ Jet Concept 수영복(Addidas 개발) - 물의 저항을 없앤 경기용 수영복으로 이미 실용화됐다.

◆ 휴대용 프린터(PrinterDreams 제품 Print Brush TM) - 와이셔츠 주머니에 들어가는 300cc 정도의 크기로 휴대전화, 노트북, 무선PDA 등의 포맷 차이에 상관없이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이다.

◆ PDA에서 MP3 등 전자기기를 운반, 격납, 접속할 수 있는 자켓(Scott eVEST 공급제품)

◆ 옥외용 1인승 VTOL기(DOD와 NASA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SoloTrek XFV) - 시속 70마일로 비행 가능한 1인승 헬리콥터이다.

◆ 신체에 부착시켜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

◆ 하늘을 나는 자동차(Moller International의 2인승 자동차 M400) - 시속 350마일로 달리고 교통체증 우려가 없는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Sky Car이다. Moller는 VTOL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 무선 휴대전화(Charmed Technology의 Charmed Badge) - MIT의 미디어 연구실을 독립시켜 창업함으로써 적외선에 의한 무선 인터넷을 악세서리 크기의 기기로 만들어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 태양열 경주용차(미시간 대학 공학부 제작) - 1999년 3000km 이상을 달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스에서 9위를 기록했다.

◆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PC(WetPC의 SeaSlate) - 오스트레일리아 해양연구소가 내압 에어탱크 안에 PC기기를 담으로써 수중마스크 면에 Virtual Monitor를 설치한 타입의 PC가 개발됐다. 해군이 채용한 후 개량돼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 수심 30m에서 가동한다.

15개 제품에 필요한 기술개발, 실용화가 화학산업의 재료개발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25>